

러시아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전략

Strategies of Korean Trade Companies According to Russian WTO Accession

이재현(Jae-Hyun Lee)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 검토와 러시아 경제동향분석 | 참고문헌 |
| III. 러시아 WTO 가입과 교역환경 변화분석 | Abstract |
| IV.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진출시 대응전략 | |

국문초록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과학기술력,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이 큰 동토의 제국 러시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즉, 원유, 가스, 광물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대외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 강력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입해 러시아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1993년부터 추진해온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19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012년 7월 10일 러시아 의회는 WTO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22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156번째 WTO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인 러시아가 WTO에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30%에서 15%, TV부품이 10%에서 0%로, 철강제품이 20%에서 5%로 감소하는 등 러시아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통해 거시경제 부문에서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개방, 제조업 활성화 등 변화를 기대하고, 실물경제에는 관세율 인하, 수입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과 소비증대를 전망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아무튼 러시아 WTO 가입은 시장개방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개선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제조업과 기술이 강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협력이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러시아 WTO 가입 이후 무역자유화,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준비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교역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진출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러시아, WTO, 무역기업, 대응전략

I. 서론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우수한 과학기술력,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잠재력의 러시아가 변화무쌍하게 글로벌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가 1993년부터 추진한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19년만에 획득하고 발효하였다. 즉, 2012년 7월 10일 러시아 의회는 WTO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22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156번째 WTO 회원국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러시아 WTO 가입은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공정성·투명성 등으로 거시경제 부문의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개방, 제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실물경제부문은 관세율 인하, 수입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과 소비증대가 전망되고 있으나, 반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아무튼 세계 11위의 경제규모(2010년 GDP 1조 4794억 달러)인 러시아의 WTO 가입은 對 러시아 수출시 자동차 관세가 30%에서 15%, TV부품이 10%에서 0%로, 철강분야는 2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교역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하기 좋은 국가, 외국인 투자유치, 대외 에너지 의존형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경제 현대화 5개년 계획’ 등 강력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시스템 현대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입을 통한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이 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990년 수교하여 수교의 역사는 짧으나, 기업진출, 교역증대 등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바 있어 이번 러시아의 WTO 가입은 투명성 확보, 관세인하 등 장애요인이 해소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며, 특히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과 투자분무에 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 무역이 관세인하 효과를 통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인근 EU 국가 등 다른 WTO 회원국의 기업진출도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어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에 의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EU와 FTA가 체결이 추진되고 있어 EU와의 교역활성화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에 수출증대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게 증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격경쟁력제고, 마케팅활동

강화, 경쟁심화에 따른 활동비용 증가 등 위협요인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WTO가입 후 시장자유화, 개방화로 글로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간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준비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기회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진출할시 새로운 접근 및 진출 전략이 요구되기에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러시아 경제동향 분석

1. 선행연구검토

러시아 WTO가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수행은 주로 전문연구기관, 은행부설 연구소, 지역 전문가, 학계 등에 의해 발표가 되었는데, 대체로 추진배경, 영향분석, 경제협력방안 등을 분석하였는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1)¹⁾는 “러시아 WTO 가입 이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및 행정시스템의 개선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²⁾을 전망하고,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은 평균 3% 정도에 불과해 대러시아 수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또한 관세 인하항목 중 3분의 2이상은 가입 후 1년에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인하효과는 점진적임을”을 분석하였고, 이재영외 6인(2011)³⁾은, “러시아 WTO가입으로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로 대러시아 서비스 교역 및 투자분야, 특히 WTO 통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이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건설·유통서비스 분야의 양허하는 등 116개 서비스 업종의 양허로 러시아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기업진출 확대”를 전망하였으며, 안병민·이옥남(2012)⁴⁾은, 러시아 WTO가입 배경과 시장여건 변화를 상품 및 서비스 양허 환경변화를 중점으로 분석하고, 교통물류 환경변화 분석과 교통부문 투자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한·러 간 교통물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은행 포항본부

1)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과정과 경제적 효과’ 2011, 11.

2) 세계은행은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러시아를 183개국중 120위로 평가함.

3) 이재영 6인,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1 No. 34, 2011, 12.16.

4) 안병민·이옥남,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른 한·러 간 교통물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협력·북한본부, 2012, 10.26.

(2012)⁵⁾는 “러시아 WTO가입후 예상되는 관세율 인하(10%에서 7.8%로), 관세 폐지와 통신·보험·은행 등 116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장벽 해소로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이 용이함을 진단하며,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대러시아 수출이 2002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77.3%의 증가추세와 영일만항과 러시아 간 정기항로 추가개설 검토, 영일만항을 통한 물품운송이 활성화 조건으로 TSR(Trans Siverian Railway)과의 연계수송 필요성, 러시아 지방정부와 포항시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방안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제시한 연구였으며, 조성대(2011)⁶⁾는 “현재 평균 10%인 수입관세를 7.8%까지 관세인하를 전망하며 일반 공산품은 9.5%에서 7.3%로, IT 제품은 평균 5.4%를 0%로 각각 관세인하되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관세인하효과가 최대 3억5000만 달러”까지 전망하였으며, 김태연(2011)⁷⁾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2010년 2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등 경제위기 이후 빠른 수요회복으로 2011년 10월말 현재 러시아 자동차수출이 16만6000대, 26억2000만 달러, 자동차부품 11억1000만 달러를 수출해 자동차 분야가 우리나라 대러시아 전체 수출 약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러시아 WTO 가입으로 관세인하와 직접 수출이 증가”됨을 분석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바 상품별, 지역별 영향분석, 관세인하 효과, 교통물류환경의 변화, 법·제도적인 측면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은 러시아의 WTO가입이후 예상되는 교역환경 변화 및 영향분석과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러시아 교역, 투자진출시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분석과 국가적 관점에서 그랜드디자인 전략 마련을 통한 실무적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선행논문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가지는 차별성을 부각 시켰다.

2. 러시아의 경제동향 및 정책 분석

1) 러시아의 경제동향

러시아가 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등장과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 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푸틴 3기를 맞아 정치적으로 강한 러시아 정책 대신, 경제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토대를 구축하여 투자환경

5) 한국은행 포항본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2012, 7.18.

6) 조성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상품분야 평가 및 영향’, 한국무역협회 개최 러시아 WTO 가입의 영향과 무역업계 대응설명회, 2011, 12.21.

7) 김태연, ‘러시아 자동차시장 평가 및 WTO의 가입 영향’, 한국무역협회 개최 러시아 WTO 가입의 영향과 무역업계 대응설명회, 2011, 12.21.

개선,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경제현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 부패척결과 관료개혁 수용, 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즉,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완화하고, 시장의 역할과 법치를 보다 강화하는 시장경제체제 정착에 중점을 둔 투자 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 민영화, 낙후 지역 경제개발, 세제 개편 등의 경제정책 기조이다. 이는 러시아가 WTO가입으로 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고 교역 및 투자유치 증가와 아태지역 및 기타 국가들과 대외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 과학원은 향후 10년 내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과 2020년 세계 GDP⁸⁾ 3.6%를 점유하고, 1인당 GDP 29,800 달러로 분석하고 있다.

〈표 1〉 러시아 거시경제 주요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실질 GDP 성장률	3.7	3.6	3.9	4.1
산업생산성장률(Industrial production growth)	3.8	4.0	4.0	3.9
실업률	6.2	6.1	5.8	5.6
연평균 인플레이션	5.1	6.5	6.6	5.7
민간소비지출(Private consumption)	5.4	4.5	4.4	4.4
정부지출(Government consumption)	2.2	2.3	3.0	2.8
투자예산총액(Gross fixed investment)	6.0	7.0	7.2	7.0
상품수출(FOB 기준, 10억 달러)	540.6	552.4	581.6	607.2
상품수입(FOB 기준, 10억 달러)	351.0	399.8	441.6	492.3
상품·서비스 수출(Exports of goods & services)	4.8	6.2	5.9	5.4
상품·서비스 수입(Imports of goods & services)	12.6	10.7	9.6	7.9
내수(Domestic demand)	4.9	4.7	4.8	4.7
연말기준 대외부채(10억 달러)	453.1	491.4	529.9	569.9
연평균 환율 (1달러 대비) 루블화	30.86	31.16	32.00	32.40

주: 2012년도 추정치, 2013, 2014, 2015년도 예상치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www.eiu.com)

2)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혁신산업 육성 및 투자확대 정책

푸틴은 경제 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해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신 산업기술정책을 추진예정이며, 2020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2.5-3%(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품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약·첨

8) 2011년 기준, 러시아 명목 GDP는 1조 8,504억 달러로 세계 GDP의 2.64%, 교역액은 8,447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 2.39% 차지.

단화학·비금속·IT/NT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스콜코보(Skolkovo)⁹⁾같은 혁신산업단지 조성의 확대이 예상된다. 또한 푸틴은 투자규모 확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2015년까지 투자¹⁰⁾규모를 GDP 25% 수준으로 확대하여, 향후 20년간 일자리 2,500만개 창출, 5년내 노동생산성 30%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 국가투자위원회 설치, 기업가의 권리보호제도 형성, 투자재판소 설립, 투자전담기구 권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러시아 정부의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발전전략 및 정책	발표일	비고
1	러시아 경제현대화 정책	2009년 5월	대통령 훈령
2	2020년까지 경공업 발전전략	2009년 9월	
3	2009~2015 방송발전 프로그램	2009년 12월	
4	2010~2020년 자동차시장 발전전략	2010년 4월	
5	2011~2020년 정보사회 국가프로그램	2010년 10월	
6	2020년까지 제약산업 발전전략	2010년 10월	
7	러시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2010년 11월	
8	2020년까지 중공업 발전전략	2010년 12월	
9	2020년까지 의료산업 발전전략	2011년 2월	
10	2030년까지 러시아 사회경제발전전략	2011년 2월	
11	러시아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프로그램	2011년 2월	
12	2020년까지 금속공업 발전전략	2009년 3월	
13	2015년까지 항공산업 발전전략	2008년 5월	
14	2020년까지 전 산업 혁신 발전전략	2011년 9월	
15	2030년까지 가스, 석유화학 산업 발전전략	2012년 3월	
16	러시아 보건 정부프로그램	2012년 12월	

자료원: 러시아 정부 부처종합,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2013.4.4.

3) 민영화 추진

푸틴정부는 민간부문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까지 정부 부문을 축소할 예정이다. 전략산업인 원자재 관련 기업의 정부소유 주식을 줄일 것이며, 비원자재 기업의 경우는 모든 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혔다.¹¹⁾

아직 민영화의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에너지, 통신 전력, 금융 등 5개 대기

9) 스콜코보(Skolkovo)는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조성중인 첨단산업단지로서 러시아는 향후 3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

10) 러시아는 'Doing Business 2012'의 세계투자환경 순위에서 총 183개국중 120위 기록함.

11) 푸틴은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의 민영화도 고려중.

업 주식의 공개매각(IPO)으로 민영화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석유·가스, 항공, 금융 부문 등 20개 국유기업이 민영화 대상이며, 이로 인한 정부 수입은 약 2,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다. 푸틴정부는 민간부분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목표 하에 지도층의 원만한 합의와 기업의 협조를 통해 보다 강력히 민영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표 3〉 주요 러시아기업 민영화 추진 일정(2013년 기준)

회사명	업종	정부 소유주식	지분 매각률
Transneft	석유, 송유관	78.1%	3.1%-1주(2013년까지)
Rosneft	석유	75.1%	25%-1주(2015년까지) 전량매각(2017년까지)
VTB	은행	75.5%	25.1%-1주 매각(2012-13년간) 전량매각(2017년까지)
Sberbank	은행	57.58%	7.6%매각(2012-13년간)
Sovcomflot	조선	100%	50%-1주 매각 (2013-13년간, IPO형식 예상)
Russian Railways	철도	100%	25%주식-1주 매각(2013년부터)
Aeroflot	항공사	51.175%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Sheremetyevo	공항	100%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RUS Hydro	수력발전	58%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FSK	송배전	79.11%	4.11% 매각(2012-13년간)
Rusnano	기술개발, 투자	100%	10% 매각(2012-13년간)
Alrosa	다이아몬드	50.9%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Rosselkhozbank	은행	100%	25%-1주(2015년까지)
Zarubezhneft	에너지 개발	100%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United Aircraft Corporation	항공기 제작	82.95%	모든 주식 매각(2017년부터)

자료 : 모스크바타임즈, 2012.1.26.

4) 세제 개편 추진

푸틴은 사회 형평성 제고와 재정 확충을 위해 사치세 등 세금 신설과 세금포탈 근절 계획으로 2013년부터 호화주택, 고급자동차 등에 사치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주류세 및 담배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축소와 세금포탈 근절을 위해 기업의 해외 셸컴퍼니(Shell Company)¹²⁾ 설립에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 다각화를 위해 비원자재 관련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WTO 가입 이후

12) 기업의 외형만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거나 불명확한 회사로 시세차익을 노린 편법적인 기업인수와 주가조작에 용이하게 사용됨.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¹³⁾와 하이테크 산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증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5) 낙후 지역 경제 개발

푸틴은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 예비기금(Reserve Fund) 조성을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즉, 극동지역개발 예비기금을 통해 지역 운송망 구축 등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할 국영기업 또는 합자회사 설립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인프라 조성과 대도시간 고속철도 구축 등 운송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항공·선박·고속철도 등의 인프라에 2012년 20억 루블을 투자하고, 2018년 월드컵을 대비해 고속철도개발 프로그램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위해 1990년대부터 경제적으로는 시베리아, 극동에 매장된 지하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거주 러시아인의 수가 급감하는 반면, 1억 명에 가까운 중국 동북3성의 막대한 인구, 중국 인력의 지속적인 극동지역 유입에 따른 위협 등을 인식하고 연방정부·주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연해주 경제개발 프로그램

- | |
|----------------------------------------------------------------------------------------------------------------------------------------------------------------------------------------------------------------------|
| <p>○ '연해주 경제개발 프로그램'은 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 투자환경 개선 - 연해주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 - 연해주 지역 내 상품·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 - 중장기 예산계획 실행 등 예산집행 구조 선진화 |
|----------------------------------------------------------------------------------------------------------------------------------------------------------------------------------------------------------------------|

13) 러시아는 WTO 가입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 농업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WTO 가입에 따라 무역왜곡적 농업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

Ⅲ. 러시아 WTO 가입과 교역환경 변화분석

1. 러시아 WTO 가입 추진경과

러시아가 2013년 8월 22일 WTO 156번째 회원국의 지위가 발효됐다. 1993년 GATT체제하의 가입을 신청한 이후 1998년부터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자국 내 에너지 가격 협상 문제와 미국, EU와의 이견, 금융위기, 2008년 그루지야와의 정치적 분쟁 등으로 회원 가입에 난항을 겪던 중 2011년 10월 153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¹⁴⁾가 스위스의 중재안¹⁵⁾을 수용하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약 20년 만에 러시아 WTO가입이 최종 승인됐다. G20 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가입국이던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국제 정치적 위상 제고 및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2. WTO 가입에 따른 변화와 교역환경 분석

1) 교역·투자 환경 측면

러시아 WTO 가입은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러시아의 경제적 부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WTO 가입은 경제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역·투자에 있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그동안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취했던 관세가 인하되고 각종 무역 관련 투자제한 조치들이 개선되어 러시아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의 무역 관련 법령·기준의 사전공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부여 등의 절차 규정 강화로 규제의 불투명성이 개선되어 해외투자자의 신뢰성 제고효과도 기대된다. 아무튼 WTO 가입은 교역·투자 확대로 이어져 시장경쟁도 심화될 것이기에 WTO 가입효과의 극대화 전략과 시장선점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한·러 FTA 체결 등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 예상된다.

2) 상품 양허 측면

상품 양허측면에서 러시아는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

- 14)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조지아간의 전쟁 이후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공화국을 여전히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자국 세관직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러시아가 이를 반대함.
15) 세관문제 해결을 위해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공화국과 러시아간 국경검문소에 국제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이 지역의 교역자료를 조지아 측에 제공.

고, 공산품 관세는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 관세는 13.2%에서 10.8%로, IT 제품중 컴퓨터 수입관세는 현행 5.4%에서 3년 내에 관세 폐지되며, 무선전화기는 2013년까지 관세 폐지하고,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10%에서 5%로 각각 관세인하를 하였다. 또한 수출세 양허는 고철, 구리, 목재, 펄프 및 종이 등 700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도 양허하였다.

3) 서비스 양허 및 기타 측면

건설·운송서비스 등 서비스 양허측면에서 러시아는 총 116개 업종에 대해 양허하였다. 우리나라의 양허 수준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양허 업종이 더 많으나(한국 110개, 러시아 116개), 제한 없이 양허한 업종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아(한국 37개, 러시아 26개) 우리나라 양허수준이 더 높은 편이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시장 접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하여, 특히 우리나라가 미양허한 국경간 공급(mode1) 분야도 양허하여 개방도가 높으며, 보험·은행서비스는 전분야를 양허하였으나 설립형태·지분소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한도(49%)가 5년내 폐지되고 외국계 은행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WTO TRIPS¹⁶⁾(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고 SPS(식품위생 검역협정),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규정 표준화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제 폐지를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 기능을 할 지식재산권 중재 재판소가 올해 개소될 전망이다.

〈표 5〉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관세율 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30%	25%	15%	2019년
자동차부품	5~15%	5%	0~10%	즉시~2018년
TV 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6) 지적권과 관련된 포괄적 국제조약으로 기본원칙, 보호기준,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함. 2009년 러시아 내 소매시장 판매상품의 24%가 위조품으로 알려졌고, 2010년 러시아에서 총 6,118건의 저작권 침해 발생함.

4) 러시아 WTO가입 영향 분석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1번째 수출대상국이며, WTO가입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일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대러 교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1년 \$100억에서 2015년에는 \$200억 수준으로 증가가 전망된다. 특히 많은 품목의 관세율 인하 등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소가 기대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러시아 수출증대와 러시아시장 접근 기회 의 확대가 기대되는 등 향후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2) 투자부문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진출은 수출과 달리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업분야의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양허(116개 업종)하므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WTO 가입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로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러시아 진출을 위한 투자확대가 전망된다.

5)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자국산업 보호정책과 FTA 추진

러시아 WTO 가입은 기업이 러시아 경제가 좀 더 개방되고 사업 운용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일련의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거대 경제조류에 합류했으나 완전한 자유경쟁체제에 국가경제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 자체가 그동안 에너지 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국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 온 점도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표 6〉 러시아의 자국산업 보호 추진동향

분야	추진내용
농업	농업분야 종사기업에 가솔린, 디젤 등의 에너지 공급가를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정책을 연장했음. 세부적으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가솔린·디젤 생산가격보다는 낮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12년 2분기 연료 도매판매 평균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농업기계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음. 이외에도 각 지방정부별로 비료구매, 종자확보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농업 관련 기업의 소득세 영세율 적용도 연장할 계획임.

분야	추진내용
자동차	2012년 6월 12일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신차와 중고차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사용료는 일종의 환경부담금 성격의 세금으로 수입상이 차량을 수입할 때 한번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폐차시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하겠다는 것임. 8월에는 사용료 산출산식도 선보여 연식 3년 이상의 중고차는 5000달러 이상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버스과 같은 상용차는 1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세금이 부과됨. 그러나 러시아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업체에는 큰 타격이 될 것임.
기타	6러시아 항공사들이 러시아제 신형 항공기를 리스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논의됨. 또한, 러시아 연방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등재된 푸틴 대통령의 발언 중 정부 차원의 공식입찰의 경우 러시아 제품 구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WTO 가입 이후에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임.

또한 러시아는 WTO가입 이후 CIS회원국 및 세르비아(2013년 기준)와 FTA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와도 통관, 지적재산권, 위생검역, 기술규제 등에 대해 제협의를 중에 있으며 2013년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자유무역연합(EU)도 뉴질랜드에 이어 FTA를 체결할 예정이며, 베트남, 페루, 칠레 등 러시아는 현재 38개국과 FTA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표 7〉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 로드맵

구분(2012.7-2013.3월)	총건	이행 건	진행 중	미이행 건
전체	120	33	46	41
건설인허가 단순화	22	2	13	7
세관시스템 개선	18	7	4	7
전력이용 접근성 강화	28	8	11	9
부동산 등록	13	0	12	1
수출 진출 용이성제고	22	16	0	6
반독점 규제강화 및 경쟁강화	17	0	6	11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보고서, 2013.4.15.

7) Post-WTO 떠오르는 유망산업

최근 Ernst & Young(2012)¹⁷⁾이 발표한 러시아 투자진출한 외국인 투자가 208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WTO 가입 향후 2년간 광물자원, ICT, 에너지산업, 농업, 소비재, 자동차 산업 등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산업으로 평가했다.

17) Ernst & Young, Russia attractiveness survey, 2012.

8) WTO 가입 이후 수출증가 사례분석

러시아 WTO가입이후 우리나라 대러시아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관세안정(자동차 관세 30% - 15%로 인하)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상위 1, 2위를 차지하여 가입이후 효과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러시아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현재 부산항, 포항영일만항, 동해항, 속초항 등에서 수출되고 있는데, 속초항¹⁸⁾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이 지난 한 해 동안 1만6천633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러시아는 자국 자동차업체 보호정책으로 2009년부터 배기량 2천500cc SUV의 경우 연식 3~5년은 2008년보다 176%, 3년 미만은 19.4%나 수입 관세를 인상한데다 실물경기 하락, 관세율 불안정 등으로 침체되어 수출 감소와 중고자동차 수출기업이 속초항 배후지역에서 떠났었다. 그러나 현재는 꾸준히 증가하여 예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제2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현황분석

2012년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교역실적은 수출은 111억 달러(전년대비 7.7%증가), 수입은 113억5000만 달러(4.6%)로 총교역액 224억5000만 달러(6.1%)의 실적을 올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3년 대러시아 수출은 작년보다 6-7% 증가한 117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입 상대국 중 러시아 순위는 수출은 11위(2011년)에서 10위(2012년), 수입은 13위(2011년)에서 12위(2012년)로 상승했으나, 금액비중은 교역 2.1%, 수출 2%로 시장개척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원: KOTIS 통계

<그림 1> 대러시아 교역액 및 수출액

18) 속초항 중고차 수출실적은 2002년 3대를 시작으로 2003년 58대, 2004년 1천380대, 2005년 2천259대, 2006년 1천976대, 2007년 3천500대, 2008년 1만1천678대, 2009년 833대, 2010년 1천138대, 2011년에는 5천273대, 1만6천633대가 수출되었다. 속초시 속초항만물류사업소, 2013. 3.27.

또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이 전체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했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광물·에너지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수출입 모두 관련제품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의 경우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이 수출 상위 1, 2위 유지하였으며, 3위인 합성수지는 PE/PP 등 현지 업체의 생산능력 확대에도 2012년 수출액은 작년과 비슷한 5억7000만 달러 기록하여 시장환경 악화에도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무선전화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수출은 2011년 7억2000만 달러(수출비중 7.0%)에서 2012년 7억6000만 달러(6.9%)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8〉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대러시아 수출			대러시아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승용차	3,119	28.1	원유	3,904	34.4
자동차부품	1,645	14.8	나프타	1,790	15.8
합성수지	578	5.2	유연탄	1,355	11.9
화물자동차	569	5.1	천연가스	850	7.5
건설중장비	478	4.3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840	7.4
총 수출액	11,099		총 수입액	11,35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2012년 기준, MTI 4단위 기준)

IV.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진출시 대응전략

1.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경제협력 신뢰프로세스 구축전략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990년 수교한 이래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역증대 추세와 경제협력관계는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7-2008년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구성이후 2009년 한·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렇듯 향후 무역, 투자 등 제반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협력틀을 구축하여 한·러간 공동 비전과 실행방안이 담긴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스터플랜을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도 러시아 진출에 대해 두려움과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중요성에 무관심 하며, 투자환경, 정책, 법률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 우리나라 교역규모에 비해 러시아 투자가 저조한 편이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상호 이해와 신뢰장치 구축이 요구된다.

2. 기업 비즈니스 편의를 위한 한·러 무비자협정체결 및 발효

한국과 러시아간의 단기비자 면제협정¹⁹⁾이 체결되면 여행절차와 국민 간 교류를 편리하게 할 것이며, 주로 관광객과 비즈니스 상담·회의 참석·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기업인 등이 혜택 대상이 되어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과 러시아간의 단기비자 면제협정은 2012년 7월 우리나라가 러시아측에 제안²⁰⁾을 하였으며, 오는 9월 단기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할 계획²¹⁾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단기비자 면제협정은 30일 이하 기간이 검토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3개월(9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유학이나 취업 목적의 경우 면제대상에 제외된 것을 확대 대상에 포함시켜 양국간 관광²²⁾, 비즈니스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실행방안으로 다가오는 9월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비자 협정체결과 2014년부터 발효 및 면제기간 확대를 위한 아젠다로 적극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3. Monotown내 제조업 투자진출 전략

현재 러시아에는 Monotown(모노타운)²³⁾ 약 300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공장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생산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외국기업은 모노타운 내 기업지분을

19) 단기비자 면제협정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 이하 단기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국이 상호 합의하는 기간 동안 방문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

20) 한국은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고(2011년 기준 1만2천400 달러) 러시아인의 국내 불법체류율도 감소되는 상황(2011년 기준 1.3%)을 감안하여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방안으로 러시아 측에 공식 제안했음.

21) 연합뉴스, 2013. 4.19. 콘스탄틴 브누코프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 4월 18일 자국 라디오 방송 '골로스 라시이(러시아의 목소리)'와 인터뷰 내용 "현재 30일 이하 단기 방문자들을 위한 무비자 협정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힘.

22) 비자 면제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극동시베리아지역의 한국 의료수준 높고 저렴한 선호도 등으로 한국 의료관광 2~3배 증가가 예상됨.

23) 모노타운(Monotown)이란 한 가지 산업이 한 도시를 다 먹여 살리는 마을을 뜻하는 용어로예를 들어, A라는 도시에는 목재 가공공장이 유일한 기업이며, A도시 근로인구 대부분이 그 목재 가공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A라는 도시를 모노타운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인수하면서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최신식으로 교체해 양질의 제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농수산물가공, 목재가공, 선박수리 등 지역경제 특성과 연관된 Monotown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4. 한·러 FTA체결을 통한 비교우위 선점전략

러시아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자동차, 건축, 농산물 등 내수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한·러 FTA를 조기에 체결하여 시장을 선점해야한다. 최근 러시아가 진행 중인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 협상 등은 러시아 시장의 통상 규범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개방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상품수출 시장의 경쟁을 가열시키고 인근 EU국가 등의 진출 확대로 시장 잠식 가능 및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노력도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모두 제공하는 상황이며, 단계적인 시장 개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對러시아 최대 교역 지역인 EU와의 FTA 협상 시작이 예상됨으로,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통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조속한 한·러 FTA 체결 협상²⁴⁾을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통상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경제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통상 인프라 확충전략

러시아는 WTO 이후 변경될 각종 규정이나 삼국관세동맹이 정한 관련 규정과의 조정으로 인해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예외 규정도 빈번히 만들어지고 있다. 러시아 경제를 이끌던 민간분야의 소비가 감소해 경제가 하강국면에 있고 향후 상황에 따라 대러시아 수출에 적신호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 시장의 법, 규제 제도, 통관절차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전략을 요구한다. 예를 든다면 러시아에 병원에 진출할시 외국인 의료진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즉, 외국

24) 현재 러시아는 한-러 간의 교역구조(한국: 상품 수출, 러시아: 원자재 수출)로 인해 러시아 측이 얻을 만한 이득이 없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함. 우리나라 정부는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소극적임(2008년 한-러 FTA 체결 논의 중단된 상태).

인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형병원이 러시아에 투자 진출하여 병원을 설립하더라도, 의료진만은 러시아인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진입장벽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또한 대러시아 통상 전문가는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기업, 학계는 물론이요 정부 기관에서도 대러시아 전문인력 확충과 이를 활용할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비즈니스에서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러시아 시장의 특성상 각종 개별적 인사교류, 경제 협력 단체 조직, 경험관련 연례 정기행사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통상네트워크 구축은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경제특구간 경제협력과 거점별 진출전략

우선 공간적 개방을 통한 경제특구 간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이 요구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비행기로 2시간 정도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이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이유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 논리는 옛 이야기다. 변화무쌍한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개방을 통한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과 러시아의 항만경제특구, 레저관광특구, 특별경제구역(SEZ), 스킨코보 혁신도시 등 글로벌 경제특구와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는 광활한 대륙이기에 거점별로 각기 다른 시장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시 거점별 진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즉, 러시아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러시아 지역과 노보시비르스크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지역,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 러시아 지역이 서로 다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점별·품목별 시장특성에 따른 프리미엄제품 특화, 주요 지방도시 공략, 현지생산체제 구축 및 현지화 등을 고려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7. 對러시아 수출품목 다변화전략을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전략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1년에 이어 작년에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동차 관련 제품이 대러시아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이 특정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엔저 약세로 경쟁제품인 일본산 차량 및 부품 단가의 인하가 예상되어 큰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WTO 가입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IT, 화학제품, 기계류, 농수산물가공식품, 물류분야 등을 중심으로 대러시아 수출상품을 확대를 위

해 관련기업의 집중육성과 이에 기반인프라 확충전략이 필요하다. 즉, 현재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맞는 틈새 수출상품을 개발해 수출품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병원 현대화 수요가 있는 대형병원을 타겟대상으로 하여 국내 대형병원의 러시아 진출 전략이다. 러시아에 대형병원을 운영하면서 컨설팅 서비스 수출 및 U-Hospital 구축 관련 S/W 시스템 수출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V. 결론

살펴보았듯이 인구 1억 6천만명, 면적 651만km²의 광범위한 거대경제권인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항공편으로 2시간, 선박으로 17시간이면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정학적위치와 한·러 수교 20년, 경제협력 등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는 분명 새로운 기회요인의 등장이자 변화 앞에 서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對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대와 수출시장으로서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러간 경제협력플랫폼과 신뢰 프로세스 구축 마스터플랜 마련, 對러시아 기업 비즈니스 편의를 위한 한·러 무비자협정 및 발효, Monotown내 제조업 투자진출 전략, 한·러 FTA 체결을 통한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 확보전략, 공간적 개방을 통한 경제특구 간 연계를 통한 경제협력전략, 러시아 경제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인프라 구축전략, 수출품목 확대를 통한 지속 수출성장 기반확충전략, 체계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전략 등 우리나라 기업의 對러시아 진출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경제시스템 현대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성 확보, SOC를 통한 투자 확대, 낙후지역 개발, 민영화 추진 등 경제개혁 단행을 통한 대외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경제 외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는 WTO에 가입했고,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가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주목받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간, 산업간 분업을 이루어낸다면 경제협력으로 수십년간 고도성장 잠재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면밀한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러시아시장을 삼아 글로벌 경제벨트를 마련하고 준비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도 러시아가 멀게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기업인이 많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기회를 적극 활용

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과 전략수립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된다. 예전에 흔히들 러시아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국가라고들 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본 대응전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 러시아 WTO 가입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2.
- 김상욱, 러시아 WTO가입과 프로젝트 시장진출 방안, 지식경제부 2012년 RUSSIA FORUM, 2012.
- 김태연, ‘러시아 자동차시장 평가 및 WTO의 가입 영향’, 한국무역협회 개최 러시아 WTO 가입의 영향과 무역업계 대응설명회, 2011.
- 러시아 경제개발부 보고서, 2013.
- 모스크바 타임즈, 2012.
- 숙초시청 향만물류사업소 물동량 동향자료, 2013.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과정과 경제적 효과’ 2011.
- 안병민·이옥남,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른 한·러 간 교통물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협력·북한본부, 2012.
- 이재영 6인, ‘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1 No. 34, 2011.
- 조성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상품분야 평가 및 영향’, 한국무역협회 개최 러시아 WTO 가입의 영향과 무역업계 대응설명회, 2011.
- 한국무역협회, 2013.
- 한국은행 포항본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2012, 7.18.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2013.4.4.
- Kotra,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Global Market Report 13-039, 2013.
- Economist Intelligence Unit(www.eiu.com)
- Ernst & Young, Russia attractiveness survey, 2012.

ABSTRACT

Strategies of Korean Trade Companies According to Russian WTO Accession

Jae-Hyun Lee*

Large tundra of the Russian Empire, has rich resourc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huge domestic market potential is rapidly changing. Based on the abundant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gas, and minerals, as foreign trade is active, the huge capital is moving. And commitment the active SOC by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Russian economy. One of them pushed the WTO since 1993, 19 years to see fruition join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s the official entry into force August 22, Russia, July 10, 2012, Congress passed the treaty after joining the WTO and of the 156th WTO member countries, was officially join. As the WTO, Russia has the world's 11th-largest economy in the steel tariffs from 30% to 15% are exported to Russia, South Korea Car TV parts from 10% to 0%, reduced from 20% to 5% Korean export companies to export to Russia, etc., is expected to become the new land of opportunity. Russia hopes the changes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e service industry, manufacturing revitalization the macroeconomic sectors of the economy through the WTO, and forecast, but the consumption increased revenue due to tariff cuts, falling import prices and the real economy, and weak manufacturing base. On the one hand, the perspective of concern. In conclusion, Russia joining the WTO, and the feed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opening, the Russian advance in Korean companies be facilitated and strong complementary cooperation, especially in manufacturing is expected. In this paper, after Russia joining the WTO, trade liberalization, and ready for a new era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t the point of expanding openness to propose strateg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Korean companies during the Russian advance

Key Words : Russia, WTO, Trade Enterprises, The Corresponding Strategy.

*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search Fellow(Ph.D. in Economics)